

해동의 모닥불 피우는 대형기획물 한아름

출판에고로 짚어보는 올해의 출판흐름

'혹한의 동토에도 봄은 오는가'

올 한해 독자 곁으로 찾아갈 책의 운명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다. 아직도 그 파괴력이 고갈되지 않은 IMF의 위기는 출판인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망령이다. 하지만 이제 출판계는 내성의 시간을 지나 조용히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각 출판사들의 기획안을 살펴보면 해동의 기미가 뚜렷이 느껴진다.

우선 몇몇 출판사의 대형 기획물이 출판시장에 모닥불을 피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탐구가 심화되고 인문학에서 정신분석학의 활약이 눈부실 전망이다. 대중문학이 여전히 득세할 것이지만 순수문학계도 중견작가들의 저력이 돋보일 것이다. 새로운 천년의 갈림길에 선 한국사회에서 소장파 지식인들의 준엄한 반성과 성찰이 우리 사회에 날카로운 메스를 가한다.

외국 문학 **도스토예프스키, 푸쉬킨 그리고 괴테**

올해는 외국문학의 대가들이 출판계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린책들에서 6월에 출간할 《도스토예프스키 전집》 전11권이 관심을 모은다. 정음사판 전집이 나온 지 30년만에 한글세대 독자들을 위해 중역을 일체 배제하고 원전으로 번역했다. 이항재·석영중·박재만 교수 등 노문학계의 소장학자 18명이 번역진으로 참가했고 번역기간만

5년이 걸렸다.

전집출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국내화가 30인이 참여한 '도스토예프스키를 주제로 한 작품전'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도스토예프스키 기념관에 소장된 '도스토예프스키 원고와 유품전',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영화화한 구소련과 프랑스의 영화를 입수, 방영하는 '도스토예프스키 영화제'도 마련한다.

이에 앞서 3월에는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 푸쉬킨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푸쉬킨 전

집》 전6권을 펴낸다. 고려대 석영중 교수가 완역한 이 전집은 국내 처음으로 소개되는 서정시·장편서사시·희곡 등이 포함돼 있어 푸쉬킨 문학의 전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솔에서도 전3권으로 《푸쉬킨 선집》을 준비해 러시아 문학출간의 열기를 더한다.

한편 생각의나무는 지난해 레마르크 탄생 100주년 기념을 맞아 발간된 전집을 계기로 레마르크의 미발표 유고작과 알려지지 않은 초기작을 내놓는다. 지난해 말 《언약의 땅》을 펴낸 데 이어 올해에는 《꿈의 다락방》부터 《개선문》까지 다섯권을 이어낸다. 민음사에서는 올해 괴테 탄생 150주년을 맞아 《괴테전집》을 완간하고 솔의 《카프카전집》도 계속된다.

새로운 대형기획물로는 프랑스 문고출판 문화의 전범으로 꼽히는 '크세주' 문고가 한길사의 〈한길 크세주〉 시리즈로 번역된다. 현재 프랑스에서 3천6백여권이 출간된 이 시리즈에서 1차분 100권을 계약하고 3월에 30권을 펴낸다. 인류 지식의 집대성으로 평가받는 이 시리즈는 올해 인문 독서시장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특히 프랑스 작가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지난해부터 조금씩 선보이기 시작한 아랍·지중해권 문학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유럽, 그중에서도 프랑스 문학작품이 외국문학 출판을 주도할 전망이다. 열린책들은 90년대 프랑스 문단의 문제작들만을 엄선해서 펴낸다. 마리 다리오세크의 《암페지》부터 아멜리 노통의 《불쏘시개》까지 순차적으로 10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밖에 엘리에트 아베카시의 《쿤란》(문학동네), 시몬느 보부아르의 《연애편지》(열린책들), 레몽 장의 《쓰레기 왕》(세계사) 등이 번역중이다.

인문 **정신분석학 탐구 기열 동양정신과 미학의 진수 찾기**

인문분야에서는 정신분석학에 대한 열기가 강화된다. 솔은 정신분석 개설서로 상반기에 《정신분석의 기본원리》·《프로이트와 나는 시간들》·《히틀러의 정신분석》 등을 출간하고 하반기부터는 《용 전집》 3권을 펴내기 시작한다. 지난해 《프로이트 전집》을 펴낸 열린책들은 올해 이 전집의 연장선상에

서 《정신분석학 사전》을 추가한다. 프로이트의 삶과 저작을 비평가의 시각으로 정리한 M. 로베르의 《정신분석 혁명》(문예출판사)과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사랑의 정신분석》(민음사)도 이 경향을 심화시킨다.

역사교양서와 역사인물서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다.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한길사) 고려시대편 4권이 이번 달 안에 출간되고 출간기념으로 2월말에 금강산 역사기행을 기획하고 있다. 석필에서는 하반기부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양서 시리즈를 펴낸다. 들녘에서도 선비·당쟁·개화 등 주제로 접근한 역사서를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역사인물서로는 《해원신윤복》(열화당), 《김사랑 평전》(문학고지성사), 《한국 문화사 인물들》(강) 등이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되살린다. 외국인물로는 《소셜 링컨》(문학고지성사)과 《체 게바라》(실천문학사) 등이 새롭게 복원된다.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전통을 재조명하고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기획도 활발하다. 한길아트는 전통건축물을 통해 전통미학의 뿌리를 탐색하는 〈한국건축의 고전〉 시리즈로 1차분 24권을 준비중이다. 올해 '건축문화의 해'와 조응하는 이 시리즈는 인문학적 건축미학의 전범을 세워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암사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시리즈가 우리 옷, 우리 곤충, 우리 나무, 음식상식 등으로 더욱 충실해진다.

한국미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한 《한국미의 발견》과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조각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한 《법공(法空)과 장엄》(이상 열화당) 그리고 초기 무속에서 통일신라시대의 불교문화까지 한국문화의 맥을 짚는 《삼국시대 불교문화》(학고재) 등은 전통미학과 한국정신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동양미술 분야에서는 하반기에 개마고원에서 중국·인도문명의 유적들을 살피는 대중 교양서 《돈황석굴-미와심》·《앙코르 와트》·《아잔타·엘로라》 등을 펴낸다.

동양정신과 미학의 진수를 찾는 책들도 기획안에 다수 올라 있다. 푸른숲에서는 노자·장자·공자·맹자 등 동양철학의 핵심사

'솔보'의 파안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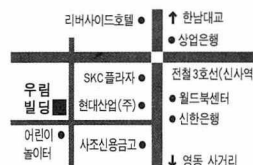
'솔보'는 간혹 주인 아저씨의 자전거를 뒤따라 한강 둔치의 풀숲을 신나게 달려 볼 때가 있습니다. 풋풋한 풀냄새며 흙냄새, 모두가 솔보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나게 달려 보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저희 회사에서는

각종 학술 서적과 사전류를 비롯하여 아동 도서, 잡지, 사보, 자서전, 회고록, 개인문집, 학회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출판물의 편집 업무를 총괄하여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원고 집필에서 교정, 편집 디자인, 전산 조판, 필름 출력에 이르는 전공정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더욱 새로운 각오와 정성으로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한의 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三現編輯室 SINCE 1989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5 팩 스 : 549-6877
천리안 ID : SAMYEUN

상가와 저작을 전문가가 쉽게 풀이한 <현대인은 ~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산은 <천안문-근대 중국을 만든 사람들>, <마테오 리치-기억의 궁전> 등으로 동양정신의 핵심을 넓고 깊게 파헤친다.

한편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을 밀도 있게 탐사한 미시적 탐구서들이 인문읽기의 개성적인 경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 손의 진화과정을 파헤친 <손>과 동서양의 소금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담은 <소금과 문명>(이상 지호), 시간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과 철학서의 핵심 대목을 정리해 시간의 의미를 새롭게 짚어본 <시간>(석필) 등이 이러한 경향을 대변한다.

지구적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발언도 더욱 날카롭고 높아진다. 지난해 <네 무덤에 침을 뱉어라!>로 국내 극우 파시스트들의 정신을 풍자와 독설로 해부한 진중권은 올해도 <자유주의 비판>·<진보주의자 비판>(개마고원) 등으로 국내 지식인 사회에 메스를 가한다. 삼인에서는 김현·마광수·장선우 등 12명을 비평한 <자유주의자들>(가제)을 펴낸다. 푸른역사와 푸른숲이 공동기획한 <전환기 시대의 지식인들>(가제)과 <새로운 중심을 향하여>는 젊은 지식인들의 시대인식과 2천년대를 향한 메시지를 모은다.

비소설 실용

사라지는 옛것에 대한 낮은 목소리

아동·컴퓨터 시장, 확충과 재편

새로운 밀레니엄을 향한 미래 예측서들도 조심스럽게 기획되고 있다. 문학과지성사에서 이번 달 안에 나올 <구텐베르크-은하계의 종말에서>(가제)는 20세기 인쇄매체에서 21세기 디지털매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다룬다. 피터 로리의 <미래의 역사>(석필)는 우주시대를 향한 새롭고 흥미로운 시각과 이론을 제시한 책으로 다음달에 출간된다.

대중문학 분야에서는 지난해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였던 판타지 소설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우혁의 <퇴마록 말세편>(전3권), 김경진·진병관의 <남북>(전3권, 이상 들녘) 등이 베스트셀러시장을 공략하고 세계사의 자회사인 청한에서는 아설록의 영상

첨보물 <동풍>(전2권)으로 본격 엔터테인먼트 소설시장을 열어간다는 포부다.

대중문학의 시장점거로 순수문학이 주춤하겠지만 젊은 여성작가와 그동안 뜸했던 중견작가들의 작품이 정통문학의 맥을 이어간다. 전경린·신경숙·김인숙, 이순원·구효서·성석제 등의 젊은 작가들이 왕성하게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중견작가 최인호·오정희·현기영 등의 작품도 준비중이다. 한편 어른을 위한 동화로 한승원·이원규(문학동네), 안도현·황인숙(열림원)의 동화가 어려운 시절을 따뜻하게 밝혀준다.

비소설 분야에서는 문명의 속도에 밀려 소멸되는 것들을 되돌아보는 에세이와 문인들의 산문집이 득세할 것으로 예측된다. <옛길>(학고재), <한국의 대표 고개기행>·<사라져가는 장터 풍경>·<비무장 지대에서의 사색>(실천문학사) 등이 잊혀져가는 우리것에 대한 만가라면 김용택의 <섬진강 이야기>(가제, 전2권), 남진우의 독서일기인 <문학수첩>(이상 열림원) 등은 작가의 진솔한 내면 풍경을 담아낸다.

아동서 시장에서는 아동문고가 새롭게 기획,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문학과지성사는 초등학교 고학년용 대상으로 한 아동문고를 새롭게 개발하고 현암아동문고는 올해까지 50권을 간행한다. 산하는 저학년 동화를 보완하면서 다음달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컴퓨터 관련서를 10권 준비하고 있다. 한편 보리는 1924년부터 1950년까지 신문과 잡지에 발표된 모든 동화와 동시를 묶은 <겨레 아동문학 선집> 10권을 4월에 펴낸다. 잊혀진 아동문학작품을 발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분야에서는 올해 4월에 출시될 예정인 Windows 2000과 MS-Office 2000 관련서들이 컴퓨터 시장을 빠르게 재편할 것이다. 홈페이지 제작 및 애니메이션 관련서와 초보자 입문서가 시장을 황금분할할 것으로 보인다. 영진출판사는 이달 말에 나오는 <강남길의 TV보다 쉬운 인터넷>으로 컴퓨터 입문서 시장의 절대강자를 꿈꾸고, 정보문화사는 <초보자를 위한 길라잡이> 시리즈와 프로그래머를 위한 <프로페셔널 시리즈>로 승부를 건다는 복안이다.

— 박천홍 기자